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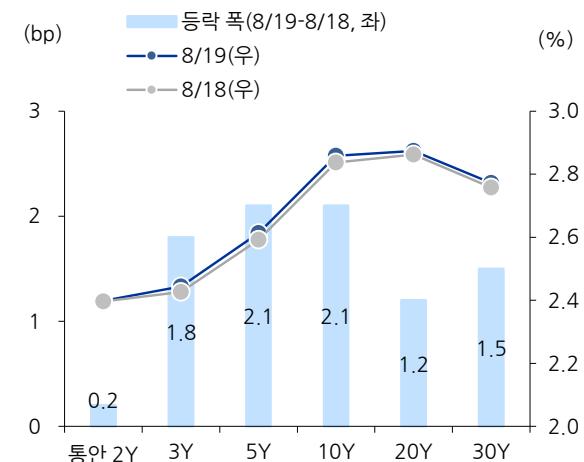
Eugene's FIICC Update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		(단위: %, bp, 틱)			
		8/1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44%	1.8	2.4	-152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58%	2.1	7.7	0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41.4	41.1	36.1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30	-5.0	-9.0	65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10	-19.0	-70.0	118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49%	-1.7	1.7	-49.0
	미국채 10년물	4.307%	-2.7	1.7	-26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55.8	56.8	55.8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50%	-1.2	0.8	38.7
	호주국채 10년물	4.327%	5.8	8.3	-4.1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전일 길트채, 미국채 금리 흐름에 연동되며 보합권 내 혼조세로 출발. 소비자심리가 '22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호주금리가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.
- 한은 총재 매파발언에 8월 인하 기대 후퇴.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 지켜볼 것이라 언급. 올해 성장을 전망 관련해서는 상방 가능성에 열렸다고 진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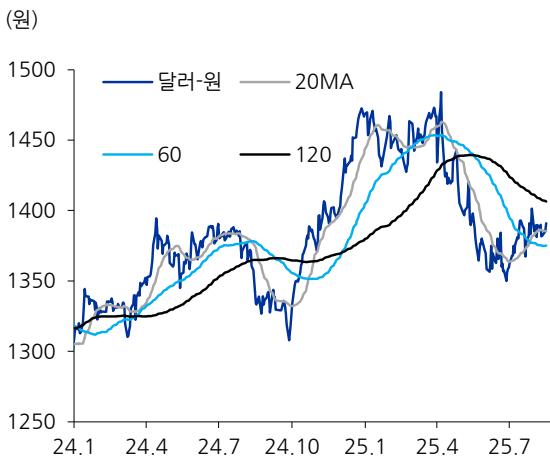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4거래일만에 강세 마감.
- S&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+로 유지, 등급 전망은 '안정적'을 부여. 이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며 장기금리 중심 하락.
- S&P, 관세 수입이 상당한만큼 OBBBA 법안 통과에 따른 재정 악화가 대체로 상쇄될 것으로 평가.
- 한편 WTI는 러-우 종전 기대 속 하락하였고, 이에 발맞추어 BEI도 장 중 꾸준히 하락.
- 시장은 22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에 최대 관심을 표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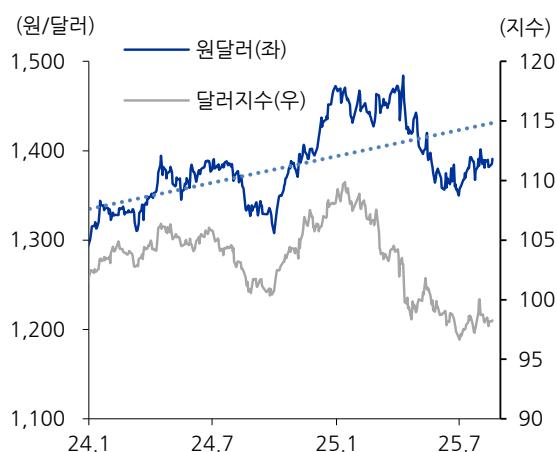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		(단위: %, \$)			
		8/19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90.90	0.4%	0.2%	-5.5%
	달러지수	98.28	0.1%	0.2%	-9.4%
	달러/유로	1.165	-0.1%	-0.2%	12.5%
	위안/달러(역외)	7.19	-0.0%	0.0%	-2.0%
	엔/달러	147.59	-0.2%	-0.2%	-6.1%
	달러/파운드	1.349	-0.1%	-0.1%	7.8%
	해알/달러	5.50	1.2%	2.1%	-11.0%
상품	WTI 근월물(\$)	62.35	-1.7%	-1.3%	-13.1%
	금 현물(\$)	3,316.35	-0.5%	-0.9%	26.4%
	구리 3개월물(\$)	9,684.50	-0.5%	-1.6%	10.5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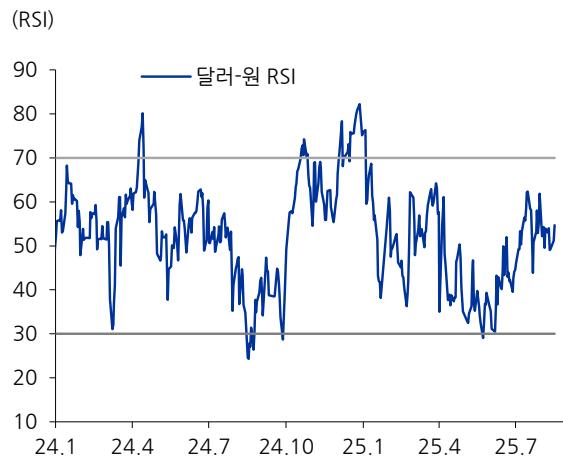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5.90원 상승한 1,390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2.00원 마감.
- 간밤 트럼프 - 켈렌스키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지만 구체적인 소득은 없었음. 달러-원은 달러 강세를 반영해 +3.50원 상승 출발.
- 개장 후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 경계감 등에 1,390원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다가, 장 막판 상승폭을 확대하며 1,390원에 안착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캐나다달러 약세, 위험회피심리에 상승.
-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AI 베불 우려 속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. 팔란티어는 -9.3%, 엔비디아는 -3.5% 하락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 약화.
- 전일 S&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. 관세 수입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.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며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발언.
-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협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,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이 있겠지만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발언.
- 캐나다 달러는 7월 CPI가 +1.7%(Y) 상승해 시장 예상을 밀돌자 금리 인하 기대에 약세.